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 신곡원 (충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이커뮤니티 소장)

오늘날의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은 물론, 건강하고 기록해야 할 교회에서도 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종 매체들을 통해 들려오는 교회 관련 뉴스에 학생들은 교회 다니다고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라네요. 과연 오늘 이 땅에 소망은 있는 걸까요?

Q1.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죄, 점점 더 부패해가는 이 세상, 오히려 죄를 신동하고 두둔하는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걸까요?

일반인총

죄악을 통한 타락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세상이 즉시 심판과 종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합니다. 타락은 단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삶의 방향을 비틀어 놓을 뿐입니다. 죄와 악은 선한 것을 망쳐놓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단지 선한 세상에 기생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비틀어 왜곡시켜 놓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대개 90%정도 진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법을 해할 만큼 건강해서 일을 저지르고요, 이처럼 악은 선을 "비틀고, 오염시키고, 토막"냅니다. 매춘이나 동성애를 한다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질서를 가쓰르는 악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성적 매력은 유지되지요. 죄악은 선을 잘못 사용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감시한 일은 하나님이 세상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 곧장 파멸로 치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은총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나 보존하는 은총입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이상 기후가 맹위를 떨치는 중에도 사철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찾아오는 것은 창조주의 신실하신 은총 때문입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문화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Q2. 아, 성경을 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 수 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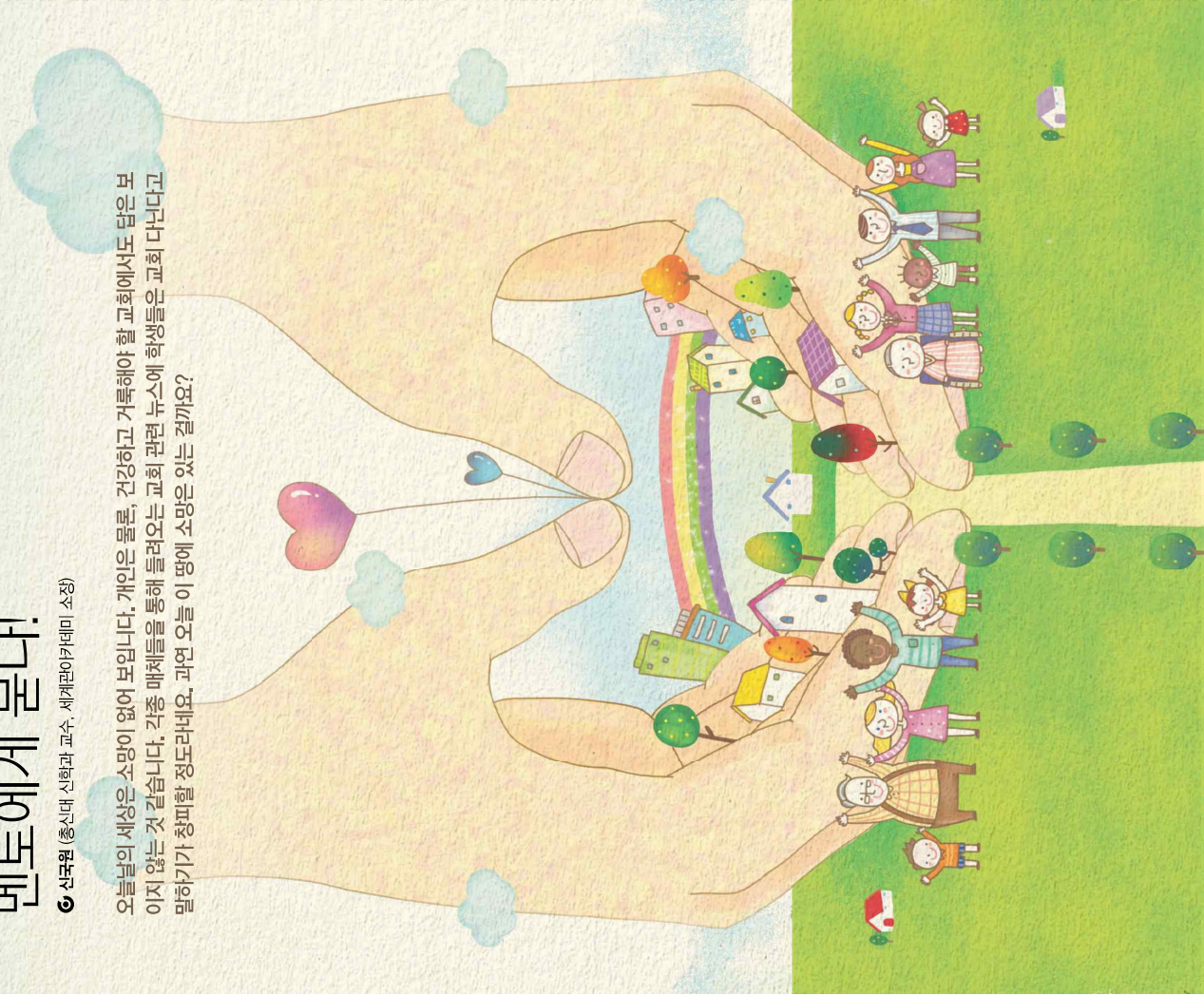
세상의 소망

죄악으로 망가져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상을 알수록 세상과 삶은 암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려던 세상은 아무런 의미나 소망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연 질서가 비록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미는 배려되었습니다.

성경은 비록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자멸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직후 즉각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뛰어드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악과 비참함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깊을 치르기 위해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은 헬몬이 아니라 회개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죄인의 위치를 돌아보게 하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인인이 벌을 받아 예민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공황이 아주 없지는 않았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시몽들의 땅으로 쫓겨날





Q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

구원하는 믿음의 첫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일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은 성인이나 교육자,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서기모니는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미호페트를 일러라고 불렀다면 펄쩍 뛰며 부인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같이 진리의 길을 가르쳤지 자신을 길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예수는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오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는 복음서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삼 년간 동고동락한 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때로부터", "바로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 세상에 왔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어난 세상을 대신 지시기 위해 고난 받아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물론 부활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인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참될 때 그 사실과 의미는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로 인해 직역과 의심과 무의미와 좌절로 살 소망이 없던 존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

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과 삶의 변혁

저는 삼 대째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20대에 들어서야 바로스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절망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사람이 되었지요. 지독한 의심과 병환 끝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시고 또 죽으셨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벌의 대상이 아니라 은총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체험한 날은 정말 놀라운 날이었지요, 당시 많이 불리던 "어둔 밤 지나고 밝은 날이 되었네"라는 찬송의 의미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삶도 달라졌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열정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할 소망이 회복되자 곧 소명도 분명해졌습니다. 죽어 일 년간 시도 때도 없이 웃던 눈물은 시간이 가면서 말랐지만 눈은 분명히 새롭게 열렸지요.

비참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정이 넘쳤고 관계도 좋아지고 인정과 사랑도 받았 습니다. 시어도 넓어져 스스로도 놀랄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공부할 꿈을 주신 겁니다. 그 비전에 따라 계획이 생겼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그 시절 비전 속에서 이미 바라 본 길입니다.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내 그 길에 동행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지만, 모든 신앙인이 그렇게 삼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 습니다.

꿈 학생들에게 그 말의 의미를 정말 알고 믿는지를 다그쳐 묻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는 모두가 세례교인이지만, 혹시라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원하는 믿음이란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한 일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으로 살거나 헌신이나 봉사를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 받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인 것은 그가 아주 특별한 분이고 또 그가 한 일이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인간들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대신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를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의 수치와 연약을 가려주기 위한 피 흘림은 장차 예수께서 행하실 궁극적 사죄의 제사를 예표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로지 죄와 세상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습니다.

소망의 뿌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예멘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 에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보여주신 은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담긴 창 3:15 첫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지요.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는 그가 죄악 세상이 바라볼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 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가

Q4. 살아 있는 자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산 신앙이라 이기죠? 이것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었군요! 구원이 흥분이 아닌 평안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구원의 확신과 평안함

구속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구속의 내용을 잘 모르는 채 믿음만을 강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믿는다"는 단어는 태동사(태)로 목적어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언어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행위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릴 때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하산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신앙교육에서 믿음 대상과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분명하고 확신 있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간혹 실교를 듣다 보면 어째서 저토록 힘이 없을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산 기슭 부은 다음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라는 안내 방송처럼 또는 그보다 더 매미르게 들리면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분명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믿는 대상이 바를 때 믿음 자체가 문제의 해결과 평안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아기는 부모를 믿기 때문에 뽀에 인겨 편안히 잠이 듭니다. 운전기사를 믿기에 목적지에 도착할지 불안해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 다 할 수 없는 감각과 감사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확신과 소망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사회와 정의의 온전한 구원

구속은 죄인과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속과 관련된 모든 영어 단어에 다 시를 뜻하는 접두어 re-가 붙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구속은 redemption이고 거듭남과 종성은 각각 regeneration과 rebirth입니다. 회복이란 예전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창조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이 회복되려면 먼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는 그냥 용서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돌리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금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려해 원수가 된 우리는 부자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신학에선 이를 정의, 즉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중 진리입니다. 세례는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연합하여 죽고 거기서 나올 때 부활에 참여하여 온전한 새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구속은 소극적으로는 사죄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정의입니다.

오래 전 캐나다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이른 봄날 호수에 낚시를 간 어린 소녀가 물속에 빠진 지 30여 분 만에 건져져 소생한 것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에서 모든 기관이 정지했다 살아났습니다. 드물지만 어린이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부활절 시기와 맞물려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문제는 숨이 멎어 있는 동안 피가 돌지 않아 두뇌가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했지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케 해 기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Q5. 오늘날의 교회와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구원이 시점일 뿐 아니라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것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네요. 이걸 "성화"라고도 하죠?

"그레모로"의 열리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은 안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난파선이 부두에 예인되면 침몰할 염려는 없지만,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는 하는 곳에 들어가서 구멍 난 곳과 고장 난 곳을 고쳐야 다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배로서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 받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구원의 전부기 아닙니다. 온전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리와 의무의 회복을 통해 기복한 삶을 누려야 진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비록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 비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그레모로"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속이 순간적인 동시성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면을 아는 것은 신앙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아직도 저 모양이라고 비난하며 사람은 결코 안 변한다고 보는 패배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되지만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믿는 이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을 온전히 바꿀 줄은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스스로 기복하게 되기를 포기하고 적당히 만족하며 살 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복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게 합니다.

선한 삶이 따르지 않는 구원이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포기하고 삽니다.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은 가능하기에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명하십니다. 구원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work in us) 하시듯 우리는 구원을 밖으로 이루어(work out)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복한 새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규권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계 신행연구원자 세계문화연구원 이사장이다. 저서로는 '변화와 실용의 대중문화론', '신국권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인격' (이상 NIP) 등이 있다.